



미원주민 주일

# 예배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 원주민 주일

# 예배자료

본 예배 자료들을 각 교회가 미 원주민 주일을 지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들은 예배와 맞물려 사용되도록 계획되었지만, 개 교회 실정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배 순서들을 주보나 유인물에 포함하여, 교인들이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제공된 설교 자료와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예배를 시작하는 말(개회사)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이 공간은 수천 년 동안 \_\_\_\_\_(당신의 교회가 위치한 곳에 살았던 미 원주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시오)부족이 관리해 온 곳입니다(예를 들면, 웨핑어 인들(Wappinger people), 구체적으로는, 키차왕크 부족(Kitchawank tribe)). 이 지역에서 그들의 존재는 기억되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 함께 엮여 있습니다. 미 원주민 주일인 오늘 또 매일 매일, 우리는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자각과 존중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며, 첫 번째 미국인들의 공헌을 받아들이고 기념해야 합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성령께 드리는 기도

오 위대한 영이시여,  
주님은 숨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 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움 안에 우리로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붉은 자줏빛 석양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잎새와 바위 속에 숨겨 놓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언제나 깨끗한 손과 꾸준한 눈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석양처럼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수치심  
없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 미원주민 전통 기도,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29

## 예배로의 부름 (시편 116:1-4, 12-19, 누가복음 24:13-35)

인도자: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회중: 할렐루야!

인도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회중: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도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회중: 우리의 마음은 서로 연합하기 위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의 서약을 드립니다.

회중: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 미원주민 주일

## 예배자료

인도자: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회중: 할렐루야!

###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78 — 체로키, 나바호, 키오와, 크릭, 족토 가사

### 미 원주민 신조

나는 원주민 언어들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주셔서,  
우리 원주민 영적 지도자들이 영어라는 이방 언어를 모르는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친척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내게는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기의 고향에서 강제 추방되어, 머리 돌 곳이 없는 원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원주민 영적 지도자의 새로운 세대를 양성함에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떠한 언어로도, “안녕”이라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원주민의 노래와 춤을 통해서 그 민족과 온 세계에 우리 원주민이 증언하도록 빛을 비추시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을



# 미원주민 주일 예배자료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의 완전함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 원주민들이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로저 스캇 목사는 오클라호마주 족토 네이션의 일원입니다. 누가복음 2:8-11에 대한 그의 시적 해석은 미 원주민 내의 파우와우(powwow)문화에서 얻은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 축도

예배를 마치고 서로를 떠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셨고 우리가 떠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서로와 또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찬송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열린 예배 자료 프로젝트(Open Source Liturgy Project)의 미 원주민 그룹에서 발췌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